



▲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총장배 태권도대회 (사진 | 이예원 기자)

## 제3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제3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 대회가 개최됐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우리 대학 태권도학과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 태권도 관계자와 지도자, 학부모 등 총 5,638명의 인원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를 더했다. 1일과 2일에는 격파대회가 진행되었으며 3일에는 생활체육대회가, 3일부터 6일까지는 품새대회가 이어졌다.

특히 3일에는 본 대회의 개최식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참여하는 부대행사 'STAR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본교 순영관 2 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당근 장터, 플라마켓,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본교 체육관에서 열린 개최식에는 초청 내빈으로 많은 지자체 관계자와 전북권 국회의원, 전국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진배 총장은 "본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높은 참여도와 열정, 지역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전국 태권도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며,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경기에 임하고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즐겁고 보람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대회사로 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전했고, 전북태권도협회 고봉수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전주시 이성운 국회의원과 무주군 황인후 군수도 차례로 축사하며 대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이후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이 격려의 박수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수상자는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선수 학생 및 태권도 관계자와 교육자였으며, 장학금과 함께 총장상, 대한태권도협회 표창장, 국기원 표창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장상 등이 전달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진배 총장이 다시 단상에 올라 개최 선언을 함으로써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으며, 내빈과 대회 임원의 기념 촬영으로 개최식을 마무리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 신입생을 위한 JJ Major Fair, 성공적인 마무리



▲ JJ 신입생 Major Fair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학과 홍보에 나선 재학생들 (사진 | 이예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스타센터 컨벤션센터 지하 1층 하림미션홀에서 'JJ 신입생 Major Fair'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설된 전공 자율 선택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과 탐색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공 박람회는 2학기에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인문콘텐츠대학, 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 2025학년도 신입생은 물론, 전공을 희망하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총 42개 학과와 5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각 학과가 전공을 알리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부스에 교수진과 학과 재학생 선배들이 상주하며 전공 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운영 부스에서 팸플릿을 받은 후 자유롭게 부스를 돌아다니며 전공 체험을 하

고 스탬프를 받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학과 선택 설문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경품 응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품으로는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등 대학 생활에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내걸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여 'e-Major Fair' 온라인 전공 투어도 함께 진행했다. 오프라인 행사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학과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실시간으로 학사 지도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로도 신입생들이 학과 선택을 마치는 5월 23일까지 이메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축사와 특별 공연이 진행됐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JJ Major Fair는 단순한 전공 소개를 넘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즐거운 참여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 '싸울아비'의 축하 공연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 2025학년도 1학기 미디어센터 사령

#### ■대학신문사 임명

[취재부] 수습기자 | 조민영(한국어문학 23) 이동현(자유전공학 25)

#### ■교육방송국 임명

[기술부] 신입국원 | 임정민(정보통신공학 22)

위 사람을 4월 23일부로 상기직에 임명함.

## 전주대, 개교 61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 개최

지난 1일,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개교 61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이 개최됐다.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 인사, 협력 기관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대학교의 지난 60여 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부 기념 예배는 전북CBS합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시작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은 '뜻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설교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온 발자취가 바로 앞으로 대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강조했다.

2부 기념식 행사는 박진배 총장의 기념사로 시작했다. 박진배 총장은 개교 61주년을 맞이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대학 구성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을 성실히 실행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미래 100년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차종순 이사장의 치사와 임정엽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연공상, 표창장, 공로패, 우수교육자상, 우수연구자상, 수퍼스타직원상, 수퍼스타학생상, 감사패 수여를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주)삼구아이앤씨 구자관 책임 대표사원에게는 명예 경영학박사학위, 전주동현교회 이진호 담임목사에게는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했다.

박진배 총장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며 "구자관 책임 대표사원과 이진호 목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신 분들이다. 대학의 건학이념



▲ 개교 61주년 기념식에서 촬영한 30년 근속 연공상 수상자들 (사진 | 김보라 기자)

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교의 비전을 함께하는 명예박사 수여 대상자로 손색이 없다"라고 박사학위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 마경진 기자(akrudwls@jj.ac.kr)

## 제5회 전주대 포럼 개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학의 방향 제시

지난 29일, 대학 본관 4층 경기전에서 제5회 전주대학포럼이 개최됐다.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 대학의 역할'이라는 의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대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포럼을 시작하며 한 토론자는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산업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소멸'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역 소멸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지역에 머무는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토론자는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며, 인터넷이 발달한 현실을 감안해,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우리 대학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수업보다는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재학생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교양 교과목 구성에 관한 견해도 나누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개인프로젝트'를 '수퍼스타프로젝트'로 개편해 자율적인 소규모 토론이 이뤄지는 강의 방식을 구상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국 학생들의 일본 취업 사례를 예시로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



▲ 성황리에 마무리된 제5회 전주대학포럼 (사진 | 김예진 기자)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누며 토론이 마무리됐다. 사회를 맡은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전북 지역대학 연합을 통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자고 제시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 "출동! 문광의 슈퍼히어로" 낭만의 (비)바다, 문화관광대학 체육대회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출동! 문광의 슈퍼히어로'라는 이름으로 "CONNECT:U" 문화관광대학(문광대) 학생회 주최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문광대 학생회는 재학생들이 체육대회 행사에 친근하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옛 추억을 살린 복고풍 컨셉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4월 29일과 30일에는 예선을 진행하고 5월 1일에는 본선 경기를 치루었다. 예선 경기는 학생회관 뒤편 농구장, 족구장과 인조 잔디 구장 (A, B)에서 농구, 축구, 피구, 발야구, 족구,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을 겨루었다.

본선 경기에서는 주 종목들의 준결승전, 결승전을 진행하면서 열띤 응원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졌다. 문광대 재학생들은 각자 자신 있는 종목에 참여해 열정과 에너지가 뿜났다.

관광경영학과가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며, 외식산업조리학과, 호텔

경영학과, 한식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외에도 학생회비 및 학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시간을 가졌고, 참여 학생들이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푸드트럭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체육대회를 마친 "CONNECT:U"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운영진은 "천둥번개가 치는 빗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문광대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문광대 학우들이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학생회 구성원 뿐 아니라 문광대 학우, 각 학과 학회장, 교수님들, 행정실까지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광대 체육대회는 단순한 경기 대회를 넘어 학생들 간의 유대와 소속감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 전주 라한호텔 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라한호텔이 인피니티풀 개장을 기념하여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야외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 시간은 주중 10시부터 19시까지로, 기간 내에 호텔을 방문하면 수영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성수기는 무료 체험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무료 이용 혜택은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증 혹은 교내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2층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입장팔찌를 수령하면 된다. 팔찌를 착용한 후 탈의실에서 개인 수영복으로 환복한 뒤, 루프탑 야외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야외수영장은 한옥마을 전경을 배경으로 수영 공간인 어덜트풀

과 키즈풀, 휴식 공간인 카바나와 선베드, 풀사이드바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 구성원은 선베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중 유료 고객이 이용을 요청할 시 양도해야 한다. 루프탑과 연결된 2층의 카페·라운지 공간에서 디저트 메뉴와 음료도 즐길 수 있으며, 무료 체험 이용자에게는 호텔 주차권도 제공된다.

이 밖에도 라한호텔은 북카페,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 무료 이용 및 수영장 외 객실과 연회장 이용에 대한 문의는 라한호텔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 세계 환경의 날

우리 대학의 청결을 책임지는 청소 노동자를 만나다



## 세계 환경의 날이란?

세계 환경의 날은 6월 5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는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 회의로, 113개국 대표가 참석해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이렇게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기업, 시민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한다. 각국에서는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등 시급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한다.

## 우리나라의 환경의 날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1997년에는 서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환경부 주관으로 매년 6월 5일 전국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작년에는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사장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으며, 재활용품 전시 등 친환경적인 운영도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6월 2일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페스티로폼을 재활용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6월 4일 전북자치도청에서는 '제10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후 위기 대응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환경의 날' 당일에는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 걷기 캠페인'이 군산 호수 제방 입구에서 시작되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 보호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다. 제도 개혁과 캠페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는 작고 꾸준한 습관도 그 못지않게 의미 있다. 이에 본지는 매일 우리 대학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청결한 공간을 만드는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A. 원칙적으로는 오전 8시부터 시작이지만 학생들이 일찍부터 교실에 있으면 청소가 어려워 7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퇴근한 이후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화장실 청소를 가장 먼저 합니다. 다음으로 강의실마다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각 건물의 복도와 창틀을 쓸고 닦습니다. 건물 내 청소가 모두 끝나면 쓰레기들을 모두 모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뒤 하나씩 분리 작업을 합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많은 시간에는 쓰레기가 계속 발생해 이 과정을 반복한 후 퇴근합니다.

## Q.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학생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얼음이 들어간 채로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얼음이 그 안에서 녹아 처리가 힘들다. 또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물이 많은 음식물 처리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학생들이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을 내리지 않거나 휴지를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또 변기를 발로 열거나 닫는 과정에서 발자국이 남는데, 일일이 다시 저희가 닦아야 하기에 변기를 발로 여닫는 행위를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 변기에 비닐이 씌워져 있거나 물건이 놓여 있다면, 고장 상태라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니 참고했으면 합니다.

## Q. 학생들과 마주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우리 대학 학생들을 통해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인사하며 다가올 때 반갑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가끔 직접 손을 걸어 도와주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도움은 받을 수 없어 정중히 거절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고 있을 때 시원한 음료를 건네주는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뿌듯함을 느끼면서 일합니다.

## Q. 마지막으로 학교 구성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학교 안에서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를 벗어나면 치열하게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라도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모습으로 졸업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과 나눈 이야기였다. 환경 보호는 꼭 거창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머문 자리, 이용한 공간을 깨끗이 하는 작은 습관들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청결한 공간' 뒤에 있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자신의 쓰레기 배출 습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깨끗한 캠퍼스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그 출발점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 있다.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는 1989년 국제연합(UN)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한 데에서 유래했다. 가정이 생애 초기의 배움터라면, 스승은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이다. 특히 대학이라는 제3의 교육 공간에서 교수와 학생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동반자로서 존재한다. 본지는 '가정의 달'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대학 공동체에서의 배움과 돌봄,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려 한다.

###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을 위해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교사에게는 감사의 마음보다 오히려 상처와 무력감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접수 및 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504건으로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집계된 교권 침해 사례 중 상당수는 41.3%(208건)를 차지한 학부모에 의한 피해다. 교직원에게 의한 피해 31.6%(159건)와 학생에 의한 피해 15.9%(8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교사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그 원인으로 학생인권향상에 기여한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지목하기도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한 조례를 말한다. 세부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제12조 및 13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그 자체보다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교육권이 적절히 함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함께 공존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이 지속된다면, 학생 역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을 향한 비판이나 조례 폐지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순기능을 인정하고 학생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 존중받는 교실에서 교사 역시 존중받을 때,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 스승의 날 독자 투고

L-HUSS인문사회지역융합인재양성사업 김순정 연구교수    슈퍼스타칼리지 자유전공학부 이정희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중국어중국학과 최혜림 조교



스승의 날 맞이 독자투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카네이션은 다음과 같이 전달됐습니다.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개교기념일 맞이

# 변화를 통해 본 교정

전주대학교는 1964년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주영생대학으로 설립되었으며, 1981년 효자동 캠퍼스로 이전 후 198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며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시설 확충을 통해 학생 성공과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왔다. 캠퍼스는 초기 소규모 건물에서 오늘날의 스타타워, 스타센터 등 첨단 복합시설로 탈바꿈한 한편,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현대적인 교육 공간으로 변화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대학의 설립 초기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담은 사진들을 통해 캠퍼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주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학생회관



## 평화관



## 체육관



## 진리관



자유관



대학교회



예술관



구정문



교수연구동



기사 | 마경진 기자 (alfpwnsgh12@jj.ac.kr)  
사진 | 김예은 기자 (ekfzmsdl@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 (ye\_yejin@jj.ac.kr)

# 전주, 스크린과 스포츠로 세계를 뚫다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인의 축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예년보다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펼쳐진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동시대 영화 예술의 실험성과 대안적 흐름을 조명했다. 전주시의 대표 축제이자 세계적인 영화제인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중심의 부분 경쟁 도입 비경쟁 영화제로, 올해도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로 황금연휴를 맞아 더욱 많은 관람객이 영화제를 찾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에 맞추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사전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 상영작뿐 아니라 무료로 진행된 야외 상영, 페스티벌 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팔복예술공장·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이루어진 포스터 전시 등 누구나 영화제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주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관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눈에 띄었다. 2023년부터 전주시와 전주국제영화제가 함께 하는 '전주씨네투어'사업은 전주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주씨네투어'는 전주시 곳곳에서 야경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산책', 12인의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토크쇼 '마중', 아티스트가 직접 선정한 영화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영화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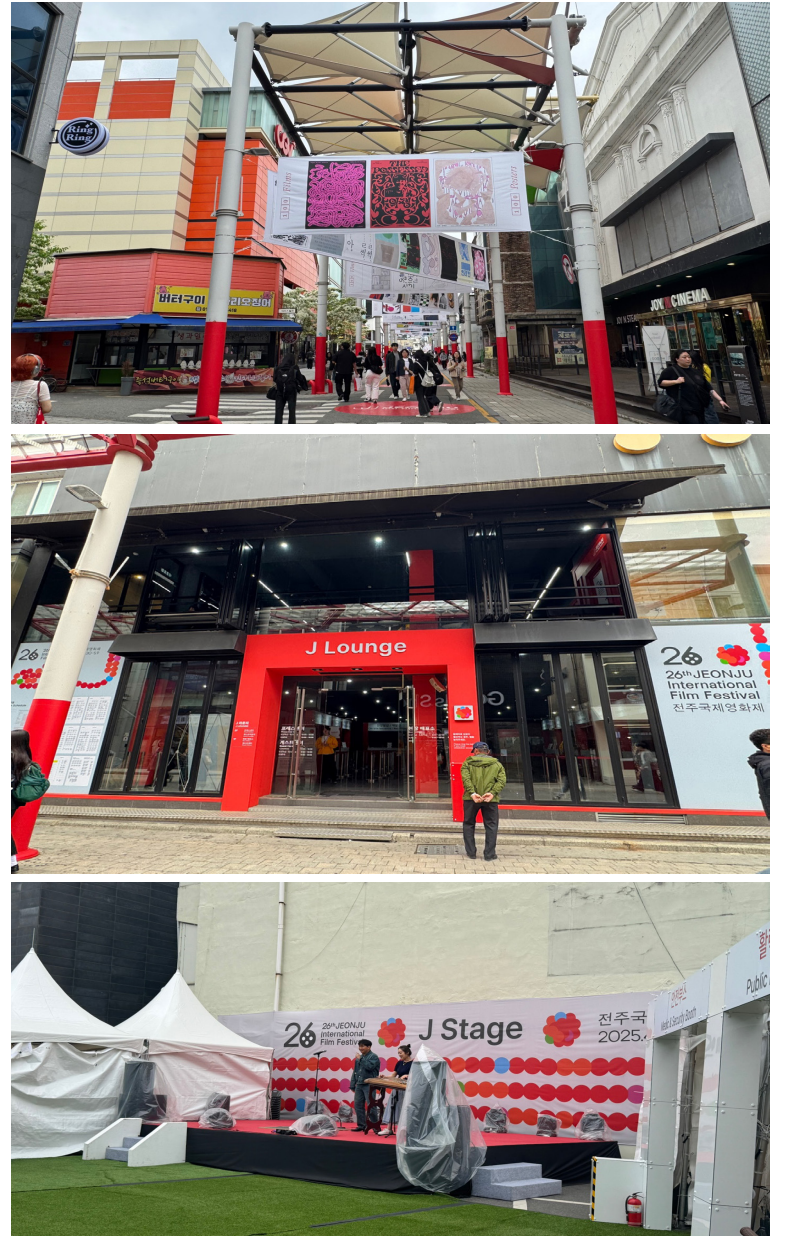
이번 영화제는 관객과 영화인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과 사회 전반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했다. 올해는 영화계의 주요 이슈인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영화 속 신체 접촉 및 노출 장면 등을 촬영할 때 배우의 안전을 책임지며 감독과 배우의 소통을 돕는 직무)', 'AI와 영화산업', '버추얼 프로덕션' 등을 주제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바뀌는 영화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막작 <콘티넨탈'25>, 폐막작 <기계의 나라에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영화가 매진되며 영화제는 흥행 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황금연휴와 함께 영화제나 도서전 등 축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겹쳐 주춤했던 전주 객사 일대의 식당과 카페에도 인파가 가득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체험형 활동에 집중하며 여가를 보내는 추세가 이어지며 전주국제영화제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며 도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 공간인 영화의 거리 일대뿐 아니라 지역 곳곳의 숙박, 식당, 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전주를 영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 기사 | 양예은 기자(kikiyye@jj.ac.kr)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형 올림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전주는 최근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울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후보지로 낙점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 도시 선정 대응 용역'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이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도시 선정 기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과제로는 유치 전략과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 시설 자료 제작, 개막식 및 폐회식과 문화 행사 기획, 자원봉사 운영, 패럴림픽 준비, 그리고 대회 이후 유산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전주 하계올림픽의 비전은 '천년의 유산, 새로운 세상을 여는 전주 하계올림픽으로'로, 전통과 미래, 자연과 첨단기술이 하나가 되는 올림픽을 지향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디지털 올림픽' 실현을 목표로, AI 스포츠와 가상공간 스포츠 구현 등 미래형 스포츠의 비전을 제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올림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성'도 전주 올림픽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체 경기장의 95%를 기존 시설로 활용하고, 임시 경기장은 목재 구조로 설치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이라는 강점을 살려 대회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후 중립 올림픽' 실현도 추진한다.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을 담은 사회적 가치 구현 역시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전주 도심권, 새만금권, 동부권 등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총 33개 종목에 200여 개국, 1,500만 명의 참가가 예상된다.

대회 이후에는 '올림픽 라키비움'을 운영하여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자산인 전주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문화 올림픽'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전에 나섰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매년 6만 7천여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지역 대표 국제행사인 만큼,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올림픽 유치추진단과 전주시는 CGV 전주 고사, 메가박스 객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주요 상영관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거리 홍보를 펼쳤으며, 이 외에도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조영식 전북도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올림픽 유치는 지방 도시라는 한계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여는 세계적 도전"이라며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전국적 지지를 확산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전북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에서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인프라 개선과 철저한 준비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넘어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도민들의 열망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그리고 지방 도시 간의 연대가 어우러진다면 전주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통해 스포츠·문화·경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사랑을 실천하는 성품채플, 자전거 타고 어디든 간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사·자·성·어> (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 간다) 시즌 5를 시작했다. <사·자·성·어>는 자전거를 타고 재학생들의 부모를 찾아가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프로젝트로, 가정의 화목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작했다. 이번 시즌 5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전주, 서천, 정읍, 진도를 거쳐 여수까지 총 515km를 이동하였고, 이진호 특임교수와 박광수 동문 그리고 선교봉사처 직원들이 함께 달렸다. 이번 <사·자·성·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진호 특임교수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자녀의 사랑을 감동 있게 전달함으로 학생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좋은 인성과 성품을 지니고 자라는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선교봉사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 사회 연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연합에 힘쓰며 사랑과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선교지원실 이유민(@jj.ac.kr)

**독자 투고**

**헤어짐**

어딜 그리 급히 떠났는가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이 그리 좋았는가  
떠나간 너는 지고 말았구나

-한국어문학창작학부 이인규



**<위대한 겸손>**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봉사처장)

세상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에게 함당하지 않은 과분한 예우를 받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타인의 영광까지 탈취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역방향 의도를 가지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겸손을 예시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 요셉만 언급하고 싶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은 17세쯤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다.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요셉도 그렇게 세상의 바닥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최대의 제국 애굽에서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로 등극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바로의 발언에 따르면, 요셉은 2인자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실세였다. 링컨은 “한 사람의 성품을 알려면 권력을 쥐 보라”고 권하였다. 막강한 권력 때문에 외부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지만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뜻을 이루는 용도로 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안된다고 고백한다(창50:19).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궁극적인 출처를 알고 함부로 수여자가 정한 용도를 변경하여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 요셉의 태도가 바로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한 요셉과 유사한 신약의 사람은 바울이다. 그는 하늘에서 주어진 권위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권한이 막강한 사도였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노력과 업적을 보인 사도였다. 게다가 지적인 면에서나 종교적인 면에서나 혈통적인 면에서나 제도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그는 심히 유능해서 당시의 왕과 총독과 유대인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수재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권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행복 추구권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고전9:15, 18). 그런 외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심지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다(고전15:9). 성도 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엡3:8). 세상의 모든 죄인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다(딤후1:15).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낮은 자로 여기는 겸손의 거인이다.

사람은 존재가 클수록 가리기가 어려운데, 어떠한 크기의 권력이 자신에게 주어져도 그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겸손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과 바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위와 권한도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적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권세에 휘둘리는 자는 권세보다 작고 휘둘리지 않는 자는 권세보다 크다. 주어진 권세가 아무리 커도 겸손이 크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권세를 맡기신다.

## 교수칼럼

# 언어는 어떻게 실험하는가: 문법 착각 현상과 인공지능 언어 처리



김희식 교수  
(인문콘텐츠대학 영어영문학과)

우리는 일상에서 복잡한 문장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생산하지만, 이 과정은 뇌의 정교한 인지 처리 덕분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과연 문법을 얼마나 정확히 따지고 있을까?

심리언어학은 이러한 문장 처리 과정을 실험을 통해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조건에서 오류를 범하는지를 밝혀낸다. 대표적 주제인 “일치 착각(agreement illusion)”현상을 통해 이를 살펴보자.

The key to the cabinets are on the table.

이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당신의 문법적 감각은 예리한 편이다. 문법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 명사 “key”이므로 동사는 “is”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원어민 화자들은 중간에 등장하는 복수 명사 “cabinets”에 이끌려 이러한 오류를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즉,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number agreement)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착각하게 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착각은 인간의 뇌가 문장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문장의 전체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보다, 동사 주변의 표면적 단서—특히 복수형 명사—를 바탕으로 동사 형태를 추론하는 휴리스틱(heuristic)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인간의 언어 처리 시스템이 ‘정확성’보다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피험자에게 문법 오류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한 후 반응 속도나 오류 탐지 여부를 측정하거나, 뇌파(ERP)나 시선 추적(eye-tracking) 장치를 이용해 문장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 혼란이 발생하는 시점을 분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실험 기법들은 인간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전통 문법 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실제 언어 사용의 역동성과 제한점을 밝혀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문법 착각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GPT 등) 또한 유사한 문장 구조에서 동사를 잘못 예측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에서 학습한 통계적 패턴에 기반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문맥과 단어 빈도에 근거한 휴리스틱(heuristic) 문장 처리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방식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문법 이론 연구와 심리언어학 연구의 의의를 확장시킨다. 인간의 언어 처리를 실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의 비밀을 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의 규칙성과 오류 패턴을 이해하고 모방하려면, 먼저 인간 두뇌가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고 실수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요컨대, 심리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밝히는 인문학적 탐구이자, 동시에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응용 학문이다.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일상이 된 지금, 인간 언어 처리 과정을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언어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개인과 사회에 도덕적 질문을 던지다 : 콘티넨탈 '25

제목: 콘티넨탈 '25  
(Kontinental '25)  
연출/각본: 라두 주데  
장르: 코미디-드라마  
러닝타임: 109분  
개봉일: 2025년 2월 19일

영화 《콘티넨탈 '25》는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중심 도시 클루지에서 법정 집행관으로 일하는 오르솔라의 이야기다. 건물 지하에서 노숙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하는 오르솔라는 퇴거 과정에서 노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에 빠지며,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친구, 엄마, 옛 제자,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를 통해 영화는 주인공이 겪는 도덕적 혼란과 모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그에 대한 해답을 내기 보다는 관객 스스로 질문을 품고 돌아가게끔 한다.

영화 속 인물들의 대화에서 루마니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거 불안과 노숙 문제다. 영화의 중심 사건인 노숙자 강제 퇴거를 통해 도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영화에서는 집을 잃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발생하는 주거 위기, 사회적 배제와 무관심의 문제가 다뤄진다.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 소외다. 영화 속 노숙자는 사고로 직업을 잃은 전직 운동선수로, 불운한 사고 이후 사회적 추락을 경험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와 인간 존엄성의 충돌이다. 영화는 법과 자본주의 논리가 인간의 ‘살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비판한다. 노숙인이 퇴거 명령을 받은 이유는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생존권보다 경제적 이익이 앞서는 사회는 개인의 비극적 선택을 유발하며, 이는 또 다른 개인의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는 사회적 무관심과 정치적 분열이다. 주변에서 노숙자나 사회적 약자를 마주할 때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사회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와 사회적 무관심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또한, 오르솔라와 주변인들의 사건에 대한 대화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사회적 연대는 약해지고, 정치적 담론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그려낸다.

한편, 이 영화의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라두 주데(Radu Jude)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신으로 2003년 부쿠레슈티 미디어 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코스타 가브라스와 크리스티 푸이유 감독의 영화에서 조감독으로 작업을 시작했으며, 단편 영화 《람과 쿠 커출라》(2006)로 국제 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9년 장편 데뷔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로 베를린영화제 국제예술영화관연맹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최근 《콘티넨탈 '25》로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각본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 번 비평적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모든 장면을 스마트폰(아이폰15)으로 촬영해 대규모 상업 영화의 문법에서 벗어난 대안적 영화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실험성과 주제의식은 이 영화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기사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디자인 | 김보라 기자(kbr3163@jj.ac.kr)



## 기자칼럼

## 청년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 청년의 몫은 어디에



조민영 기자  
(202315013@jj.ac.kr)

근래 행해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에서 청년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77.1%였으나, 20대 초반은 71.4%, 20대 후반은 71.7%에 그쳤다. 전체 평균에 비하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87.6%가 투표한 60세 이상에 비하면 청년층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다.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일부 청년층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참여에 피로감을 느껴 투표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사회의 방향성과 세대 간 정책 반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유권자의 낮은 투표율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첫째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다. 청년층은 반복되는 공약 불이행과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소모적인 이념 대립,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을 겪으며 "누가 되든 결국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은 결국 정치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외면을 불러오고 투표를 의미 없는 행동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정치에 무관심해지며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둘째는 생활의 불안정성과 참여 여건의 부족이다. 청년층은 취업, 학업, 주거, 생계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다. 현실적인 부담 속, 정치는 우선순위에 밀리기 쉽다. 정치의 영향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이념은 뒷일이 된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정치적인 관심이 청년층이 당면한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투표를 외면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치 정보의 왜곡 또한 문제다. 청년층이 정치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흔히 볼 수 있는 정보글에는 작성자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가 많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유권자는 정보를 찾고 싶어도 방대한 양과 객관적이지 못한 관점에 혼란을 겪는다. 또한 청년이 정당 내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다. 정당의 후보 선정을 기성 정치인이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정치와의 거리감을 키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균형을 흐른다. 특정 세대의 참여가 줄어들면 편향된 의견이 전체를 대신하게 된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층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데에 불리함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 더 나은 정책과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인들은 투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생각하게 되고,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아지

기 마련이다. 투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다.

때론 정치가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참여가 중요하다. 실망스러운 정치는 비판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의견을 주장해야 한다. 투표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다. 청년 유권자가 기권할수록 그들의 삶을 위한 정책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 투표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 정치가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자.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공약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정치 참여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작게나마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 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투표 방법이나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득 양극화, 청년이 살 곳은 어디에?



이동현 기자  
(ekaren33@jj.ac.kr)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치다 보면 10억 원을 넘는 매물 전단지까지 수십 장씩 붙어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미래의 주택 매매 가능성에 대해 재고하게 된다. 과연 사회초년생이 소비를 최소화하여 몇 년을 일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수도권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13억 원, 사회초년생의 평균 연봉은 세후 약 2,800만 원이다.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부양비, 결혼비, 육아비 등 각종 지출을 고려하면 주택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에는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그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노동해 집을 사는 일은 힘들어졌고, 이러한 현실은 결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소득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이후의 삶은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말은 수많은 사상이 공유한 통찰이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부모의 경제력 수준이 곧 자녀의 교육 기회와 성취 수준을 결정짓는다. 고소득층의 자녀는 양질의 사교육을 받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는 사교육을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공교육 격차로 인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점점 끊어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곧 주택 양극화로 이어진다. 고소득층은 재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진다. 202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이며, 이 중 75.2%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적인 기업 투자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면서 경제 활력과 사회적 이동성은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택 가격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13억 원에 달한다. 반면 전주나 군산 같은 비수도권 도시는 2억~3억 원 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린다. 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지방은 일자리 부족, 문화와 복지 인프라의 부재, 낮은 교통 접근성 등으로 불편함이 크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밀집하는 현상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한다.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구조적 정책

개선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산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대학이 지역의 지식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이 아닌 삶의 기반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지방은 여전히 많은 잠재력을 품고 있다. 여유로운 삶의 속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부담 등은 수도권과 차별되는 지방의 강점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득 양극화가 불러온 주택 양극화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꿈처럼 보인다면 지방의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구조적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치솟는 집값 속 내 집 하나가 없는 사회. 문제의 해답은 지방에 있다.

## Jeonju University Honorary Doctorate on Koo Ja-Kwon and Pastor Lee Jin-Ho

In celebration of its 61st anniversar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announced that it conferred honorary doctoral degrees on Koo Ja-Kwan, Chief Representative Partner of Samkoo INC, and Pastor Lee Jin-Ho of Jeonju Donghyeon Church on May 1. Over 200 guests attended the honorary degree ceremony, which was part of the university's founding anniversary celebration. Among them were Chairman Cha Jong-soon of Shindong-A Academy and President Park Jin-bae. During the event, Mr. Koo received an Honorary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while Pastor Lee was awarded an Honorary Doctorate in Theology. Koo Ja-Kwan began his business in 1968, cleaning restaurants, and built Samkoo INC into a major outsourcing company with annual sales of 2.4 trillion KRW. Throughout his career, he retained the title "Chief Representative Partner," reflecting his people-centered management philosophy. He famously transferred 47% of his shares to employees free of charge to foster a sense of ownership. Even after suffering severe burns, he continued his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His leadership, ethical management, and service as chairman of Dosan Academy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is recognition. Pastor Lee Jin-Ho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spiritual life of Jeonju University students. He organized character-based small group chapel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hurches and mission organizations and revitalized Christian studies and leadership programs. His community-oriented initiatives, including the "Love Cycle" campaig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our-Character Idiom Project," strengthened campus engagement. He also supported the university's financial development through major fundraising efforts and was instrumental in launching the Lydia Mission Center and expanding chapel programs. Upon receiving his honorary degree, Mr. Koo expressed his gratitude, stating, "I sincerely thank Jeonju University for bestowing this honorable degree. I will continue to fulfill my social responsibilities with even greater commitment." Pastor Lee also shared his appreciation, saying, "I will continue to do my utmost to realize the founding Christian spirit of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remarked, "It is a great honor to confer honorary doctorates on Mr. Koo Ja-Kwan, a role model of leadership and dedication in the business world, and Pastor Lee Jin-Ho, who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both the local community and the university's Christian mission. Through today's ceremony, we reaffirm Jeonju University's historical mission over the past 61 years and move forward with determination toward the next 100 years."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 Jeonju University Holds 61st Anniversary Commemorative Worship and Ceremon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celebrated its 61st anniversary on May 1 with a commemorative worship service and ceremony at JJ Art Hall, located in the College of Arts building. The event served as a time of reflection on the university's six-decade journey and a renewal of its commitment to the next 100 years of progress. The celebration brought together university faculty, alumni, community leaders, and representatives from partner institutions who have supported the university's growth and development. The first part of the program, the commemorative worship service—opened with a special performance by the Jeonbuk CBS Choir. This was followed by a sermon delivered by Chairman Cha Jong-soon of the Shindong-A Academy, titled "Toward the Goal." In his message, Chairman Cha emphasized, "Our predecessors in faith walked difficult paths guided by the word of God, and this path of purpose is the one the university must continue to follow."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was the commemorative ceremony, which began with an address by President Park Jin-bae. Congratulatory remarks from Chairman Cha and Alumni Association President Lim Jeong-yeop followed this. The ceremony also featured various recognitions and awards, including long service awards, commendations, merit plaques, Outstanding Educator and Researcher Awards, Superstar Staff and Student Awards, and plaques of appreciation. Following the worship and ceremony, a plaque unveiling was held, led by Seo Yoon-deok, CEO of Lipmen Co., Ltd. The new plaque bears the name of a major donor who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university's development fund. It stands as a symbol of gratitude and a marker of Jeonju University's ongoing growth and vision for the future. President Park stated, "I sincerely thank all members of our university community who have consistently given their best, making it possible for us to celebrate this 61st anniversary. As Jeonju University continues to uphold its founding Christian spirit, we must unite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achieve sustainable innovation and shared growth with our local community, shaping the next 100 years together." Meanwhile, Jeonju University was recently selected for the "2025 Regional Innovation-Centered University Support System" project, securing annual funding of 12.18 billion KRW over the next five years—approximately 60 billion KRW in total. This represents the largest project funding awarded to a private university in the province, further solidifying Jeonju University's status as a regional innovation hub.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Hosts 2025 First Semester Mock Interview Competition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President Park Jin-bae) held the 2025 First Semester Mock Interview Competition on April 30 to enhance students' job readiness and provide them with a realistic and practical interview experience. The event featured participation from College of Business faculty members as well as guest interviewers, including Kim Hae-young, CEO of Best Western Plus Jeonju Hotel, and Yang Se-byeok, CEO of B&P Culture. Their involvement contributed to creating an atmosphere that closely mirrored real-world job interviews. Students prepared resumes and cover letters in advance, customized for specific companies and positions they aspired to apply for. Using these documents, interviewers conducted in-depth mock interviews, posing tailored questions to thoroughly evaluate each participant. A total of 20 business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divided into five groups. The interviews followed a panel format and assessed various criteria such as motivation for applying,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job competency, teamwork, achievement experiences, personality and attitude, and communication skills. Students who received top evaluations during the competition will be awarded scholarships in recognition of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Dean Kim Hyo-jin commented, "This competition gave student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ceive direct feedback from industry leaders. It helped them assess their current level of job readiness and further develop essential interview skills". She adde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practical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to actively support our students' success in the job market."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 Jeonju University Successfully Hosts JJ Major Fair to Support Undeclared Students

Jeonju University (President Park Jin-bae) hosted the JJ Major Fair on April 30, offering a dynamic and informative platform to support the university's flexible major selection system and help students make informed academic choices. The event was designed to assist students admitted through the Undeclared Major Program and the integrated college admissions system, ensuring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potential majors independently and with confidence. A total of 42 academic departments and 5 administrative units participated, each operating its own booth to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curricula, core competencies, and career pathways. The fair also included interactive major exploration activities and department-led mentoring sessions, helping students engage directly with various fields of study. In addition to the in-person event, a metaverse-based e-Major Fair was held simultaneously, enabling students to participate virtually without spatial limitations. The digital platform offered extensive information on each major, along with real-time consultations, helping students resolve questions and better understand their academic options. The event was especially beneficial for first-year students in the Undeclared Major Program, offering both online and offline opportunities to discover majors that align with their interests and strengths. By providing hands-on exposure to academic departments and related career opportunities, the fair played a key role in boosting students'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in their academic decisions. One student shared, "It was really helpful to experience the majors firsthand rather than just hearing about them. Talking directly with professors and seniors gave me clarity about my future path." President Park Jin-bae remarked, "The JJ Major Fair went beyond simply introducing departments—it provided meaningful guidance for students choosing their academic and career paths. We will continue to expand programs like this to support students in exploring and deciding on their futures in a self-directed and informed way." This event marks an important step in the implementation of Jeonju University's flexible major selection system and reflects the university's broader efforts to provide personalized education tailored to each student's aptitudes and career goals.

Article by the Office of Exter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Translated by reporter Jun Ji Eun (uptoillie20@jj.ac.kr)

## 全州大学访问中国山东省的姊妹大学 - 全面 启动留学生招募工作



全州大学（校长 朴珍培）派出代表团，访问中国山东省主要城市的姊妹大学，全面展开吸引中国优秀留学生的实质性工作。

由校长朴珍培率领，国际交流学院院长沈永国、国际交流支援室室长李东根（音译）等组成的访问团，于4月21日至24日对山东城市建设职业学院、泰山科技学院及航星科技学院进行了访问，并就交换生项目、新生及插班生招生等合作事宜进行了深入磋商。

其中，山东城市建设职业学院自2020年与全州大学签署中外合作办学协议以来，与产业设计学科开展了密切合作，每年招收约70名学生，并持续开展交换生和插班生项目。泰山科技学院是全州大学最早展开韩国高校合作的中国高校，此次双方重点讨论了扩大交换生派遣规模及搞活留学项目的相关方案。航星科技学院则于2020年设立了“全州分院”，目前开设4个学科，约有200余名学生正积极准备赴韩留学。

朴珍培校长表示：“我们将致力于设计一个能够实现全州大学与中国姊妹大学共同成长的平台，构建切实推动两国人才培养的合作体系。”

全州大学目前正在积极推进校园国际化战略，努力建设符合全球标准的教育环境，提升国际竞争力。作为拓展留学生来源国的举措之一，学校运营全英语授课项目，注重学术与实践并重的教育体系，培养具有全球视野的优秀人才。

未来，全州大学也将帮助毕业的外国留学生在韩国的就业与创业，让他们在韩国稳定发展。这样不仅促进学校的发展，也将为全北特别自治道人口减少及地方消失危机贡献力量。

## 全州大学举行建校61周年纪念礼拜及纪念仪式



为回顾过去60余年的办学历程，并立志迈向百年愿景，全州大学（校长 朴珍培）于5月1日在艺术馆JJ艺术厅举行了“建校61周年纪念礼拜及纪念仪式”。

本次活动盛况空前，出席人员包括全校教职员、校友以及长期支持大学发展的地方社会人士、合作机构代表等。

纪念活动第一部分为纪念礼拜，在全北CBS合唱团的特别赞美中拉开序幕。学校法人新东亚学院院长车钟顺（音译）以《向着标竿直跑》为题进行了布道。他在讲道中表示：“信仰的前辈们曾走在卑微而艰难的道路上，怀着信心向着神的话语前行，缔造了历史；这也正是大学当走的道路。”

第二部分为纪念仪式，以朴珍培校长的纪念致辞拉开序幕。随后，车钟顺董事长和校友总会会长任正烨（音译）也发表祝辞。仪式中还颁发了年资奖、表彰状、功劳奖牌、优秀教育者奖、优秀研究者奖、超级明星职员奖、超级明星学生奖及感谢牌等多个奖项，以表彰在校工作、学习及发展中表现突出的成员。

此外，在纪念礼拜及纪念仪式结束后，举行了由立门公司代表徐润德（音译）主持的铜牌揭幕仪式。本次揭幕的铜牌上刻有为学校发展基金做出重大贡献的捐赠者姓名，将作为见证全州大学成长与未来的重要足迹永久保存。

朴珍培校长在致辞中表示：“感谢所有为大学发展全力以赴的成员，正是有了大家，才能迎来61周年。全州大学将继续秉持‘实现基督教精神’的建校理念，推进可持续创新，与地区社会共同成长，携手共绘面向未来百年的蓝图。”

另一方面，全州大学在最近的“2025年地区创新主导型大学支持体系”项目评估中，成功获得每年121.8亿韩元、五年总计近600亿韩元的项目资金，成为全罗北道内的私立大学中获得项目资金最多的高校，再次证明其作为地区创新核心大学的地位与实力。

## 트럼프, 세계 각국 상대로 '관세전쟁'... 유동성 대책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범 이후 100일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유예하거나 조정하는 등 부분적인 예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내놓은 중국의 유동성 공급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 0.1%포인트 인하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떠받쳐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나 국내총생산(GDP)으로 파악한 중국 경제 상황은 밝지 않아, 향후 조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애플 에디 큐 부사장, AI 검색엔진 도입 검토 의사 밝혀

지난 7일 현지 시각 7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 애플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 큐(Eddy Cue) 부사장이 출석했다. 그는 애플이 구글과의 협력관계를 재고하고 있으며, AI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엔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량 감소를 언급하며, AI도구의 사용증가가 검색 습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2% 넘게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AI기반 검색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라 검색 시장의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독자투고 안내

우리 대학 신문은 구성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지면에 담고자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대학 생활 속 이야기,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 등 자유 주제로 작성하실 수 있으며, 모든 분야의 진지한 성찰과 따뜻한 시선을 환영합니다.  
투고 형식: 자유  
투고 자격: 본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  
제출 방법: 이메일(news@jj.ac.kr) 제출  
필수 기재: 성명 / 소속(학과-부서) / 연락처  
채택된 원고는 편집 과정을 거쳐 지면 또는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